



사순 제4주일(3월 19일)

눈이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가 (요한 9,1-38)



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

“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동안에 해야 한다.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.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.”(요한 9,4-5)

어둠은 죄와 죽음이며, 빛은 아름다움이고 생명인 하느님 자신입니다. 빛과 어둠은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우리는 끊임없이 빛과 어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. 세상의 빛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빛이신 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.

그림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(출처: 서울주보, 2014. 3. 30.)

시작성가

| 진행자 | ✧ 가톨릭 성가 124번 “은혜로운 회개의 때”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.
(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.)

주님 초대하기

| 진행자 | ✧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.
(초대기도가 힘들 때,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.)
- 주님!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소서

하느님 말씀

| 진행자 | ✧ 한 분이 요한 복음 9장 1절에서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.

✧ 그때에 1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. 6 예수님께서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, 7 “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.”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. ‘실로암’은 ‘파견된 이’라고 번역되는 말이다.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. 8 이웃 사람들이,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. “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?” 9 어떤 이들은 “그 사람이오.” 하고, 또 어떤 이들은 “아니오. 그와 닮은 사람이오.” 하였다. 그 사람은 “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.” 하고 말하였다. 13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. 14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였다. 15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. 그는 “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,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.” 하고 대답하였다. 16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몇몇은 “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.” 하고, 어떤 이들은 “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?” 하여,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. 17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. “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,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?” 그러자 그가 대답하



였다. “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.” 34 그러자 그들은 “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 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?” 하며,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. 35 그 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, “너는 사람의 아들 을 믿느냐?” 하고 물으셨다. 36 그 사람이 “선생님, 그분이 누구이십니까? 제가 그분 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.” 하고 대답하자, 37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 다. “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.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.” 38 그는 “주님, 저는 믿 습니다.”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.

- | 진행자 | :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.
- | 진행자 | :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.

✝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.(요한 9,1)

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우리는 얼마나 공감합니까?

✝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.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. (요한 9,37)

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?

- | 진행자 | :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.

한걸음 더 나아가기

- | 진행자 | :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. (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)

✝ 우리는 얼마나 잘 볼 수 있을까? 시력이 좋은 사람은 비교적 좀 더 멀리,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. 그와는 달리 시력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을수록 흐

리게 볼 수밖에 없죠. 시력이 좋은 좋지 않은 앞을 보는 것은 일정한 부분들뿐입니다. 오 히려 아무리 잘 볼 수 있다 해도 그 외에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그것이 우 리들의 한계입니다.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. 결국 우리는 종종 눈으로 봤으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, 귀로 들었으나 귀로 들은 것이 아니죠. 우리는 본 것은 눈이 아 니라 우리 마음이고, 우리가 들은 것은 귀가 아니라 듣고 싶은 우리 마음이었던 것이죠. 우리는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합니다.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 보고 듣는 것 이 결정되죠. 진정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인지 한 번 돌아봅시다.

생명의 말씀 정하기

- | 진행자 | :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.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?

말씀 살기

- | 진행자 | :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뉘봅시다. (나눔 후)
- | 진행자 | :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‘생명의 말씀’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 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.

마침기도

- | 진행자 | :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.

마침성가

- | 진행자 | : 가톨릭 성가 124번 “은혜로운 회개의 때”2절을 노래하겠습니다. (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.)